



배드민턴 동호회 여가 문화 탐구:

배드민턴 동호회 부부회원을 중심으로

김재운¹ · 박찬우² · 임새미³

¹경인교육대학교 · ²서울대학교 · ³동의대학교

Exploration of Badminton Club Leisure Culture: Centering on Couple Members of Badminton Clubs

Kim, Chaewoon¹ · Park, Chanwoo² · Lim, Seami³

¹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niversity · ²Seoul National University · ³Donggeu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isure experience shared by family members/couples and the meaning of the shared experience, taking note of cases of couples that participate in badminton together. In this study, non-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couples and two research assistants participating in a badminton club.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processes through which couples participate in badminton and continue the participation, although study participants became to start playing badminton for diverse reasons, couples were shown to have started playing badminton mainly through the recommendation of their spouse and it could be understood that personal leisure lives have been changed into family/couple centered leisure lives. In addition, the continuous playing of badminton by couples was explain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dminton games per se and the club culture. Second, the meanings of sharing leisure by couples were shown to be the 'sharing of daily life', the 'sharing of emotions', and the 'sharing of memory'. The sharing of leisure by couples while playing badminton together was shown to increase communication, lead to acknowledgment and understanding of each other, and accumulate precious memories of life in the process.

Key words : badminton, leisure culture, couple leisure, sharing leisure

주요어 : 배드민턴, 여가문화, 부부여가, 여가공유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5765).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Chan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Tel: +82-2-880-7617, Fax:+82-2-872-2867, E-mail: ssamsuns@snu.ac.kr

Received: August, 6, 2019 Revised: August, 28, 2019 Accepted: September, 19, 2019

I. 서론

오늘날 가족/부부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 속에서 가족 기능의 약화,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가족/부부의 위기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노용구, 2005; 정혜정, 2015).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 또한 그 예외는 아니었고, 한국 사회의 위기는 곧 가족/부부의 위기로 이해되면서 가족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서광봉, 이철원, 2011). 특히, 이혼율의 증가, 가족 간의 대화 단절, 유대감 약화 등 가족 구성원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서미아, 2015; 이현주, 엄명용, 2012).

한국 사회의 가족/부부 위기 담론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써 이혼율 증가를 살펴볼 수 있다. 통계청(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1만 5천 3백건으로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2.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하루 약 300쌍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위치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의 가족/부부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오늘날 가족/부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여가'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술적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이문진, 이연주, 김재운, 2009; 임진선, 2017). 기존 연구에서 가족/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가족 구성원 간의 만족감을 높이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Kelly, 1997; Williamson, Zabriskie, Townsend, Ward, Fellingham & Kuznetsova, 2019). 또한, 부부에게 공유된 여가활동은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부부관계의 안정성을 높이

고,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Harrington, 2015). 즉, 오늘날 가족/부부의 위기 담론 속에서 공유된 여가활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가족/부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부부/가족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함께 참여하는 부부들의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배드민턴은 종목 특성상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배드민턴 동호회가 실내 체육관을 사용하면서 환경적(날씨, 계절 등)인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부부회원을 포함한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 가족/부부 여가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해되고 있다(조보성, 이연주, 김미량,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드민턴을 가족/부부 여가로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배드민턴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배드민턴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김세웅, 2009; 김명배, 유종상, 2013; 박명국, 김경렬, 오근희, 2010),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참여 동기 요인을 탐색한 연구(김진, 2001; 김주호, 강지훈; 2011, 오현석, 김경엽; 2015), 배드민턴 종목의 참여제약과 협상전략에 주목한 연구(김영구, 오현택, 2014; 이성철, 2017), 배드민턴 동호인의 스포츠재미와 운동중독에 관한 연구(김현석, 2012)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오늘날 배드민턴 동호회 참여자들의 참여동기, 여가제약, 여가만족, 여가협상 등 다양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배드민턴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배드민턴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부부/가족에게 배드민턴이 가지고 있는 여가로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 하는 학술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가족/부부가 배드민턴 동호회의 여가문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공유된 여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부부회원들의 사례에 주목하여, 그들이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여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배드민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함께하는 가족/부부에게 공유된 여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부가 배드민턴에 참가하고 지속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2. 부부에게 공유된 여가(배드민턴)는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의 문화를 탐색하고, 오늘날 배드민턴을 함께 하는 가족/부부에게 공유된 여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장노트 등의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료 수집 기간은 총 9개월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본추출법(purposeful sampling) 중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사례인 기준(criterion) 표본 추출을 실시하였다(조용환, 2002). 이를 통해 본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적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 선정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부부회원의 참여가 높은 배드민턴 동호회 3곳을 선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배드민턴 동호회 참여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양질의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회원은 상대적으로 참여 경험이 부족하여 충분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배드민턴을 통해서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는 부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부부가 함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동호회 활동과 함께 각종 배드민턴 관련 대회에 참가 하거나 동호회를 통한 교류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부부회원과 2명의 연구 보조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보조 참여자의 경우 동호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며, 동호회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구분	이름(가명)	나이	성별	경력
1	김철민	36	남	8년
2	강수희	35	여	6년
3	황정우	49	남	9년
4	박가은	45	여	9년
5	김호진	53	남	10년
6	박시은	54	여	10년
7	최건아	40	남	6년
8	안지은	45	여	6년
9	김남식	38	남	6년
10	이슬기	35	여	5년
11	강승민	36	남	10년
12	이기정	32	남	6년

*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음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배드민턴 여가 문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비참여관찰,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비참여관찰(non-participant observation)

예비관찰은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배드민턴 동호회에 방문하여, 배드민턴 동호회의 분위기, 회원들 간의 활동 경험 등을 관찰하였으며, 관찰한 내용은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예비관찰은 연구자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부 회원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연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배드민턴 동호회를 방문하여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동호회 문화, 부부 회원들의 참여 경험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관찰하였다. 오랜 비참여관찰을 통해서 배드민턴 동호회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 부부 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2)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심층면담에서는 비참여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와 연구 참여자들과 형성된 라포(rapport)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지를 토대로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부/가족이 배드민턴을 함께하는 경험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 활동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서 추가적인 내용을 질문하였다.

면담 시간은 1회 면담 시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 장소는 주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체육관에 위치한 강의실, 주변 식당, 커피숍 등에서 진행되었다.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시에는 동호회 활동 이외의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커피숍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 후 녹음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전사(typing)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전사 과정에서는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기록된 연구 참여자의 표정, 억양, 행동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록하였다.

또한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문제와 부합하는 내용을 부호화 또는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Spradley, 1979). 마지막으로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를 개념화(conceptualization) 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3) 현장노트

현장노트는 연구자가 비참여관찰을 통해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배드민턴 동호회의 분위기, 부부회원의 활동, 특이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정리하였다. 현장노트는 심층면담에서 보조자료 및 추가적인 질문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연구의 진실성

질적 연구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Guba & Lincoln(1994)에서 제시하고 있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의 방식에 따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층면담과 비참여관찰, 현장노트 등 수집된 자료를 통

해 삼각검증법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3명(박사 2명, 박사과정 1명)의 동료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심층면담의 전사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을 참여자들에게 확인(member check)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배드민턴 참가 및 지속 과정: 부부, 배드민턴 함께하기

본 절에서는 부부가 함께 배드민턴에 입문하는 과정과 배드민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여하는 부부회원의 경우 남편 혹은 아내의 권유를 통해서 배드민턴에 입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같은 여가 종목을 함께한다는 것은 이전에 부부가 개인적으로 다르게 가지고 있던 여가생활이 부부 중심의 여가생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부부가 함께 배드민턴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배드민턴이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의 특성과 배드민턴 동호회 문화로 설명되고 있었다.

1) 배드민턴 입문 : “부부, 코트에 첫 발을 딛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 주요타자의 영향, 스포츠 참가 기회의 유효성 등 개인의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진, 2001; Coakley, Hallinan, & McDonald, 2011).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회원들 또한 배드민턴에 입문하게 된 과정은 다양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

기하는 것은 진입장벽에 관한 것이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배드민턴에 대하여 “종목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쉬운 운동”이라고 설명하면서 배드민턴이 다른 종목 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였다.

배드민턴은 솔직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약수터에서 한 번쯤은 해봤고요. 다들 똑딱 똑딱 생각하고 왔다가. 쳐보고, 어! 비슷할 거 같은데 내가졌네? 이런 기분이 들면 한번 또 오고 또 오고 이려다 보면 재미를 느끼고요. (강수희, 아내, 6년)

진술과 유사하게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할 때 “약수터에서 한번 쬐은 해본 운동”,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 “멋모르고 치기 좋은 운동” 등 거부감이 낮고 쉬운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이종성, 2018). 또한 학교체육시설 개방¹⁾과 관련된 제도를 기반으로 “배드민턴은 집 주변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실내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종목을 선택하고, 배드민턴 동호회에 입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부부 회원들은 처음부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함께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부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은 남편 또는 아내가 먼저 배드민턴에 흥미를 가지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 이후에 서로의 권유를 통해서 함께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10년 초 그니깐, 2010년 초일 거예요.

1) 2005년 3월 초·중등교육법 제11조가 개정되면서 학교장의 결정 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육규칙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남기연, 손석정, 김대희, 2017).

와이프가 저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시작했고, 2009년도에 했어요. 용산에서, 퇴행성 디스크 때문에 한 6개월 치다가 수술 안하고 약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 2달 입원했어요. 그래서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배드민턴 치고 싶으니깐, ○○공원 저녁에 가서 치자 해서 딸이랑 셋이서 평가 평가 놀다가, 그러다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같이 배드민턴 클럽에 가볼래? 해서 따라갔죠. (황정우, 남편, 9년)

위의 진술은 아내가 먼저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배드민턴을 권유하면서 부부가 함께 배드민턴을 시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남편이 먼저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내에게 권유할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최건아는 “아내와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아내에게 배드민턴을 권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안지은의 경우 남편이 결혼 전부터 직장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부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남편의 권유를 통해서 배드민턴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량이 결혼하기 전에 회사 사람들과 했는데, 그게 배드민턴이었고요. 그때 하면서 아무래도 회사 사람들과 하다가 보니까 친목도모도 되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남편이 먼저 권유를 하고 저도 시작을 했죠. (안지은, 아내, 6년)

한편, 부부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함께 운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목을 같이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특히, 부부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면서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서로 다른 취미/여가 생활이 부부/가족 중심의 여가생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Dyck & Daly, 2006).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저는 원래 축구했거든요. 여긴 가깝고, 여긴 집 옆에 있지만, 그건 찾아 가는 거 때문에 맨날 한 시간 반씩 전철타고 가는 것도 귀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와이프도 축구하면, 제가 승부욕이 있어서 맨날 다치고 오니까 싫어하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와이프랑 배드민턴 치는 걸로 바뀐 거 같아요. (황정우, 남편, 9년)

신량이 맨날 술만 마시니까 운동이라도 하고 술 먹으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혼자 술 마시는 것보다 같이 운동하는 게 좋고, 같이 술 마시는 게 더 좋잖아요. (박시은, 아내, 10년)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황정우의 경우에는 과거 아내와는 다른 여가생활을 하고 있었고, 초기에는 축구와 배드민턴과 병행하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배드민턴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박시은의 경우에는 기존에 남편과 다른 여가/취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배드민턴을 시작하는 것은 부부가 가지고 있던 서로 다른 여가 생활이 가족/부부 중심의 여가 활동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haw, 2008).

2) 배드민턴 지속: “부부, 배드민턴에 빠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배드민턴을 지속하는 두드러진 이유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나는 ‘승부욕’으로 배드민턴이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의 특징과 관련된 것이며(eg., 김한미, 2011), 다른 하나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경험하는 ‘동호회 문화’에 관한 것이다(eg., 이연주, 조보성, 이석훈, 2008).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앞서 배드민턴 동호

회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배드민턴에 대한 인식, 즉 “쉬운 운동”이라는 처음 배드민턴을 접했을 때의 인식과는 다르게 실제로 배드민턴을 시작한 이후에 느끼는 배드민턴은 “어려운 운동”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니깐, 처음엔 쉬워요, 배드민턴은 일단 넘길 수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배드민턴은 상대가 좀 맞춰주면 주고받을 수 있잖아 약수터에서 한 거처럼, 심리적 진입장벽이 낮아. 근데 실력이 올라가면서 느끼는 배드민턴은 처음 생각한 거랑 다르죠. (강승민, 10년)

이러한 진술은 배드민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승부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배드민턴은 입문할 때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르게 배드민턴은 경쟁적인 종목이라고 설명되고 있었다.

근데, 보면 배드민턴 치면 배드민턴에 올인 해요. 왜냐면 이게 승부욕이 계속 생기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개인이 하잖아요. 그니깐 처음에 재한테 이겼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보다 잘하는 거예요. 후해가지고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황정우, 남편, 9년)

연구 참여자들은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승부욕’이 배드민턴에 매력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진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승부욕은 ‘등급’과 ‘콧내기’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있었다. 앞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배드민턴은 개인의 실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종목이라고 언급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등급2)’은 자신의 실력이

2) 배드민턴의 등급은 구, 일반대회 급수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급수는 주로 구 대회를 기준으로 한 급수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표가 되고,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더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어쨌든 배드민턴은 실력이 있고 등급이 나뉘는 운동이다 보니까 승부욕들이 다들 있어요. 경쟁 구도가 있고,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해도, 남은 재는 내 아래야, 누구는 내 위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강수희, 아내, 6년)

또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속에서 승부욕은 소위 ‘콧내기3)’라고 불리는 동호회 내 자체 경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배드민턴 동호회 안에서 진행되는 경기는 매 경기 ‘콧내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기 방식은 동호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기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승부욕을 갖게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래서 잘 치는 사람들끼리만 치려고 하죠. 정말 잘 쳐서 해탈하는 경지에 있으면 아무랑이나 치는데, 어느 정도 재미를 붙이고 실력 있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콧이 아까 우니깐. 그렇게 되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미안해서 같이 치자고 하지도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콧을 두 개 들고 와요. 쳐달라고 같이. 그러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초보자들의 진입 장벽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호진, 남편, 10년)

의미하고 있다. 급수는 A,B,C,D,E로 구분되고 있으며, E는 초심자(경력 1년 미만)를 의미한다.
3)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시행하는 경기 방식이다. 동호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 셔틀콕을 사용하는 동호회의 경우 복식경기에 네 명이 하나씩 셔틀콕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 세트 경기에서 2개의 셔틀콕을 사용하는데, 이진 팀이 사용하지 않은 셔틀콕을 가지고 나온다.

한편, 배드민턴 동호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동호회 문화로 설명되고 있었다. 기존의 동호회 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각 동호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는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로 논의되고 있다(eg., 김재운, 김한범, 임새미, 박찬우, 2018). 배드민턴 종목 역시 동호회 문화를 통해서 회원들은 재미를 느끼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배드민턴 동호회 내에는 다른 종목 보다 더 많은 모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호회 전체 모임, 같은 나이로 구성된 띠 모임, 성별에 따른 모임 등 배드민턴 동호회에는 다양한 모임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동호회 모임은 배드민턴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은 ‘부부 모임’을 통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강수희의 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회원의 경우 배드민턴 동호회 내에 존재하는 ‘또래 부부 모임’을 하고 있었다. 또래 부부 모임은 결혼 후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동호회 밖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미 요소로 설명되고 있었다.

일단 저는 서울에 지인이 없는데 여기 나오니깐 부부회원들이 많아서 얘기도 가족 같이 봐주고, 뭐 다 가족 같이 대해 주니깐 좋은 거 같아요. (강수희, 아내, 6년)

유사한 맥락에서 김남식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이 단순히 배드민턴만을 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이 끝나고 이어지는 동호회 회식, 그리고 동네 이웃들과의 다양한 교류가 배드민턴

을 지속하는 이유라고 진술하고 있다.

끝나고 나서 맥주 한잔 하러 가는 재미. 다 이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게 매력인 거 같아요. (김남식, 남편, 6년)

이처럼 부부가 배드민턴에 참여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승부욕’과 ‘동호회 문화’는 중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한미(2011)는 테니스 동호회 내에서 자신의 테니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테니스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재미요인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승부욕(‘등급’과 ‘콧 내기’) 또한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진욱, 박길태, 이연실(2018)의 배드민턴 동호회 참가자들의 참여동기, 재미요인, 여가만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한 구성원들과의 교류는 동호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재미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부부가 함께 여가를 공유하는 것: 배드민턴을 통해 함께하는 부부

본 절에서는 부부가 함께 여가를 공유하는 것, 즉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하면서 무엇을 공유하고, 변화하는지와 관련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부부가 배드민턴 통해서 경험하는 공유된 여가의 의미는 ‘일상의 공유’, ‘감정의 공유’, ‘기억의 공유’로 나타나고 있었다.

1) 일상의 공유 : “우린 항상 함께해요”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 참여하는 것은 곧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기존 가족/부부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서미숙, 성효용, 2017; 안찬우, 김옥주, 2014). 배드민턴 동호회의 경우 매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은 주로 저녁 시간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⁴⁾, 아래 진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부부들은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해서 대부분의 저녁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다.

날마다 체육관에 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웃음), 집에 행사만 없으면 7시부터 10시까지 항상 여기서 운동하고 있어요. (박시은, 아내, 10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가족/부부의 저녁 시간이 자연스럽게 배드민턴 동호회가 활동하는 체육관 중심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녁의 중심점이 되는 거 같아요. 보통 일반 가정들은 집으로와 그러잖아요. 저희는 늦으면 체육관으로와 항상 가는 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체육관으로 가고, 나 회사에서 바로 갈게 그러면 내 옷가지고가 그러면 내 옷 가지고 와서 바로 와서 옷 갈아입고 운동하고, 그리고 집은 같이 들어가고, 이런 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 같아요. (황정우, 남편, 9년)

이처럼 부부에게 공유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 즉 부부간의 소통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었다. 임진선(2017)은 부부간의 공유된 여가활동이 부부간의 소통의 기회를 높이고,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김남식은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하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부부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아내와 배드민턴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같이 취미활동을 하는 게, 보통 부부들이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부부들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맞벌이가 워낙 많으니까.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아니면 영화 보고 그런 게 대다수가 그럴 거 같은데, 우리가 배드민턴 친다고 하면 ‘부럽다’라고들 많이 하죠. (김남식, 남편, 6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안지은의 경우,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 참여하는 것은 “부부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같은 여가활동을 통해서 부부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화가 늘어났다고 느끼고 있었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지게 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둘 다 회사원이다 보니까 평소에는 회사 일에서 공감 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데, 같이 운동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뭔가 늘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서 친해지고 이런 것도 있고, 같은 취미를 하면서 대화가 많아진 거 같아요. (안지은, 아내, 6년)

4) 배드민턴 동호회는 체육관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되지만, 주로 새벽 클럽, 저녁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저녁시간(19시-22시)에 운영되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

하고 있었다. 즉, 공유된 여가활동은 부부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부간의 소통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었다(임진선, 2017; Kelly, 1997).

2) 감정의 공유 :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죠.”

본 연구에서 부부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해 여가를 공유하는 것은 부부간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는 부부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해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Orthner, 1975).

앞서 배드민턴을 부부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내에서 승부욕(등급, 실력 등)은 배드민턴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강수희는 부부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배드민턴 때문에 서로 다툼 경험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원래 잘 안 싸워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잘 치기를 바라는데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뭐해라, 뭐해라’하는데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게 90%인거 같아요. 운전은 남편한테 배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래요. 배드민턴은 남편한테 배우지 말라고요(웃음). (강수희, 아내, 6년)

이처럼 배드민턴을 함께하는 부부들에게 나타나는 다툼은 주로 실력과 승부욕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김철민 또한 부부간의 다툼이 “서로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문제가 “왜 이렇게 밖에 못 쳐? 더 잘 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제 배우자한테는 엄격해 지더라고요. 다른 사람

한테는 ‘아우 잘했어요.’ 뭐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빨리 잘 쳤으면 좋겠으니깐 욕심이. 그래서 막 붙잡고 계속 알려줘도 잘 안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알려줬으면 이렇게 잘 쳤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김철민, 남편, 8년)

배드민턴으로 시작된 부부의 다툼은 해소되고 다시 다툼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문상정, 2013). 박가은의 경우 “배드민턴은 서로의 연결고리”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녀는 부부의 감정이 서로 좋지 못할 때도 함께 배드민턴 코트에 나오게 되고, 코트에서 땀을 흘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서운했던 감정이 풀리곤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배드민턴을 함께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부부의 다툼과 화해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에게 배드민턴으로 인한 다툼은 부부가 함께 배드민턴을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김철민은 주로 갈등의 원인이 ‘실력’, ‘승부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의 다툼 거리도 줄어든다고 진술하고 있다.

겪고 있는 갈등들은 단기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에요. 어차피 어느 순간 구력이 쌓이다 보면, 운동이라는 게 기능적 측면이라 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제가 잔소리할 일도 향후 몇 년 내로 아예 없어질 거예요. 다 제각기 실력이 다를 수 있어도. 제일 위에 레벨은 비슷합니다. 왜냐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중략)..결국은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어느 순간 어느 정도

까지 올라가면 정체가 될 것이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상은 잔소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부터는 정말 즐기는 것만 남지 않았나. (김철민, 남편, 8년)

또한, 배드민턴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은 배드민턴의 실력적인 측면 이외에도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통해서도 해소되고 있었다. 유사한 사례로 박가은의 부부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부부간의 기대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배드민턴을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괜찮아 졌어요. 계속 하다 보니깐, 서로 욕심도 줄어들고, 사람들 성격이 다 다르고, 승부욕이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한소리 할 때, 한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할 때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서로 조심하게 되고, 싸워도 좋은 게 뭐 있어요? 나이 먹어 가는데(웃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박가은, 아내, 9년)

부부가 함께 배드민턴을 하는 것, 즉 부부에게 공유된 여가는 단순히 같은 것을 함께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선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가 함께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부부간의 다툼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의 다툼은 배드민턴을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드민턴은 부부가 절대 같이 안친다.’는 이야기 또한 이해할 수 있는데, 부부가 함께 복식 경기를 할 때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편해서 의지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소한 오해와 다툼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코트에 부부끼리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드민턴은 부부가 절대 같이 안쳐요.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 할걸요? 배드민턴은 같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부부가 같이 하면 서로 편하다 보니깐 더 기대는 게 있는. 공을 쳐주겠지 그런 거 때문에 대부분. 한두 명은 같이 칠지 몰라도 거의 안친다고 보는 게 맞아요.(박시은, 아내, 10년)

이처럼,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 하면서 처음에 있었던 다툼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 등을 통해서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고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 여가생활로 즐기기 위한 나름의 방식을 터득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부부의 공통된 여가 참여가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eg., 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5; 임진선, 2017). 하지만, 공통된 여가활동이 반드시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종목, 기간, 부부의 성격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기억의 공유 : “추억 쌓아가기”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배드민턴을 함께 한다는 것은 배드민턴을 통해서 특별한 기억을 공유하고,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기억은 ‘대회에서 함께한 기억’, ‘여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최근에 대회를 같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파트너로 해서 한 게임을 했는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3번 게임해서 2번지고 1번 이겼지만, 그 기억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추억에 남는다고 해야 할까요? (안지은, 아내, 6년)

진술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부가 함께 참가한 배드민턴 대회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다고

회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배드민턴 대회는 동호회 내에서 진행되는 반복되는 경기와 다르게 특별한 순간으로 인식되면서 부부의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한편, 배드민턴 대회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많은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⁵⁾, 전국대회의 경우 기존의 시/군/구에서 열리는 대회 보다 더욱 특별하게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대회에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단순히 배드민턴만을 위해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주말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단순히 대회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 가족/부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일 년에 대회가 약 1000여개가 있어요. 3년 전에 700여개 있었는데, 지금은 1000개가 되었거든요. 제가 가고 싶으면 거기에 맞춰요. 뭐 ○○대회다 그럼 거기다 펜션을 잡아놓고, 가족들하고 같이 내려가서 대회도 하고, 밤에 먹고 즐기고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수, 보령, 충주, 강원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황정우, 남편, 9년)

사례를 통해서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하는 것이 단순히 배드민턴 종목 자체에서 배드민턴을 통한 부부/가족의 확장된 여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김철민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부가 함께 시작한 배드민턴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확장된 여가활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은데, 전국에 대회가 참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같이 가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지역 관광을 시작하고, 붙으면 올라가면 좋고, 뭐 해가지고 저는 아들이랑 같이 남북도 나가보고 싶고, 지금 8살이니깐 조금만 지나면 될 거 같아요. 딸이랑 혼합 복식도 나가보고 싶고, 그것도 다 나중에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철민, 남편, 8년)

이처럼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 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을 통해서 다양한 추억을 쌓고 나아가 확장된 가족 여가로서 부부/가족에게 특별한 순간들로 기억되고 있었다. 즉, 배드민턴을 매개로한 특별한 기억들이 공유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추억을 쌓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배드민턴을 함께하며 경험한 기억이 앞으로의 삶에서 가족/부부에게 중요한 추억이 될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서 오늘날 가족/부부에게 공유된 여가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좋아서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회사에서 뭐했어? 뭐했고, 뭐했어. 뭐가 재미있었고, 시사적으로 뭐가 있었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10년 후에 기억에 남을까요? 저는 그래도 사람이 추억을 계속 쌓고 이전에 이렇게 해서 웃겼잖아 그런 공감대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건아, 남편, 6년)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오늘날 가족/부부의 위기 담론 속에서 가족/부부가 공유하는 여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가족/부부에게 공유된

5) 전국배드민턴 대회는 2018년 기준으로 250개가 개최되고 있다(전국배드민턴대회, 2019)

여가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배드민턴을 통해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과정’에서는 부부가 배드민턴에 입문하고 지속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드민턴 동호회 문화와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첫째, 배드민턴에 입문하는 과정은 다양한 이유로 설명되고 있었지만, 부부가 배드민턴을 함께한 것은 주로 배우자의 권유를 통해서 입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기존에 부부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여가 생활이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생활로 변화하면서 부부/가족 중심의 여가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부부가 배드민턴에 흥미를 갖게 되고 지속하는 과정은 배드민턴이 가지고 있는 종목 특성과 동호회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배드민턴이 가지고 있는 승부욕, 실력, 등급, 콧내기 등은 배드민턴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재미요소로 설명되고 있었으며, 배드민턴 동호회 문화, 즉 ‘부부 모임’을 포함한 동호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모임은 부부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배드민턴을 통해 함께하는 부부’에서는 부부가 함께 배드민턴을 통해서 공유하는 것, 즉 공유된 여가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배드민턴을 통해서 공유된 여가의 의미는 ‘일상의 공유’, ‘감정의 공유’, ‘기억의 공유’ 세 가지로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일상의 공유에서는 부부가 함께 배드민턴을 시작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공유하고, 이러한 부부간의 시간적인 공유는 곧 부부간의 소통의 증가, 그리고 일상의 공유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부부는 배드민턴을 함께하면서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배드민턴이라는 공통된 여가활동을 통해서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부부가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는 방식을 알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드민턴을 함께하는 부부는 배드민턴을 통해서 ‘기억’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부부에게 배드민턴을 함께한다는 것은 배드민턴 대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배드민턴을 매개로한 확장된 여가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가족/부부는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부부가 공유하는 여가 경험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유된 여가는 주로 가족 및 가족 구성원 간 공유하는 시간 또는 여가 형태로 논의 되어왔다는 측면을 고려하여(eg., 서광봉, 이철원, 2011; 서미숙, 성효용, 2017; Orthner, 1975), 후속연구에서는 공유된 여가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드민턴 동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가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 회원을 중심으로 공유된 여가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 젠더 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배드민턴 여가 문화를 보다 다각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명배, 유종상(2013). 배드민턴 훈련이 성인들의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2(5), 449-463.
- 김세웅(2009). 배드민턴 참여 동호인들의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 분석. *한국여가레크*

- 리에이션학회지, 33(3), 105-115.
- 김영구, 오현택(2014). 배드민턴 참여동기와 참여 제약 및 참여제약 협상전략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7(1), 511-523.
- 김재운, 김한범, 임새미, 박찬우(2018). 테니스 동호회 활동에서의 여가문화 탐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4), 67-82.
- 김주호, 강지훈(2011). 배드민턴 여성참여자들의 참여동기와 만족 및 재참여와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0(1), 15-25.
- 김진(2001). 사회체육: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참여동기 요인. **한국체육학회지**, 40(2), 277-285.
- 김한미(2011). 교육을 억압하는 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햇살 테니스회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4(2), 1-26.
- 김현석(2012). 배드민턴 동호인의 운동참여행태와 스포츠재미, 운동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1(1), 89-102.
- 남기연, 손석정, 김대희(2017).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3), 27-44.
- 노용구(2005).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여가정책.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8, 5-15.
- 문상정(2013). 중년기 여성의 부부갈등과 부정적 정서 간의 관계. **관광경영연구**, 17(3), 105-128.
- 박명국, 김경력, 오근희(2010).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참여정도에 따른 운동 몰입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3), 83-93.
- 서광봉, 이철원(2011). 부부의 여가만족 형성과정 에 관한 근거 이론적 해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3), 53-66.
- 서미숙, 성효용(2017). 배우자 간의 시간 공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경제연구**, 14(1), 103-125.
- 서미아(2015). 이혼위기 부부에 대한 정서중심집 단치료 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3(2), 291-311.
- 안찬우, 김옥주(2014). 생활체육 참가 부부의 참가 정도와 부부친밀감 및 가족기능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8(1), 727-736.
- 오형석, 김경엽(2015). 배드민턴 참여자의 참여동기, 열정, 운동지속수행 간의 인과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4(5), 549-560.
- 이문진, 이연주, 김재운(2011) 가족여가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5-13.
- 이성철(2017). 여가축진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에서 여가제약협상의 조절효과. **한국체육학회지**, 56(5), 537-548.
- 이종성(2018). 약수터 운동에서 올림픽 효자종목으로: 한국 배드민턴의 대중화와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23(3), 37-52.
- 이지연, 그레이스 정(2015). 어떤 부부가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149-164.
- 이현주, 엄명용(2012). 이혼위기 부부의 통합적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201-224.
- 임진선(2017). 부부의 여가선택유형과 여가일치여부에 따른 부부여가만족과 가족관계에 대한 차이검증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6(1), 613-622.
- 전진욱, 박길태, 이연실(2018). 배드민턴 동호회 참가자들의 참여동기 및 재미요인과 여가만족의 관계. **인문사회21**, 9(5), 471-482.
- 정혜정 (2015) 가족의 위기 대처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서비스 강화방안. **가족과 가족치료**, 23(3), 421-449.
- 조보성, 이연주, 김미량(2008).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스포츠재미가 자아존중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2), 35-45.
- 조용환(2002). 질적연구 :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통계청(2015). 국가통계포털.

- Coakley, J., Hallinan, C. J., & McDonald, B. D. (2011). *Sports in Society: Sociological Issues and Controversies*. McGraw Hill.
- Dyck, V., & Daly, K. (2006). Rising to the challenge: Fathers' role in the negotiation of couple time. *Leisure Studies, 25*(2), 201-217.
-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163-194), 105.
- Harrington, M. (2015). Practices and meaning of purposive family leisure among working-and middle-class families. *Leisure Studies, 34*(4), 471-486.
- Kelly, J. R. (1997). Changing issues in leisure-family resear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132-134.
- Orthner, D. K. (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91-102.
- Shaw, S. M. (2008). Family leisure and changing ideologies of parenthood. *Sociology Compass, 2*(2), 688-703.
- Spradley, J. (1979). *Ethnography and culture. The ethnographic interview*. Holt, Rinehart, and Winston: Florida.
- Williamson, M., Zabriskie, R., Townsend, J., Ward, P., Fellingham, G., & Kuznetsova, I. (2019). The contribution of family leisure to family functioning and family satisfaction among urban Russian families. *Annals of Leisure Research, 1-22*.